어두운 시대, '기도'로 넘어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종교 활동 조명 기획전
지선 스님 승복 등 전시
끈끈했던 종교 연대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례'다. 이 같은 기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을까.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 종교인들은 사찰과 성당, 교회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다. 인권을 지키고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렸으며, 서로 다른 신앙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이어 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기획전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개최한다.


지선 스님 승복.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종교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펼친 실천의 역사를 조명한다. 서로 다른 신앙을 지녔지만 '인간의 존엄과 정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기록물과 유물, 영상 등을 통해 살펴본다.

전시는 종교인들의 실천이 남긴 네 가지 '울림'을 따라 구성된다. 시대의 침묵을 깨고, 인권을 지키며, 진실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네 개의 주제로 풀어낸다.

1장 '기도의 시작: 침묵을 깨운 울림'에서는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심도직물 사건,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 창간, 민중신학의 등장 등을 통해 종교계 사회참여가 시작된 과정을 살펴본다.

2장 '기도의 실천: 인권을 지킨 울림'에서는 유신 독재에 맞선 종교계의 인권운동을 소개한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문과 주교 반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목요기도회의 활동, 구속자가족협의회 관련 유물 등을 선보인다.

3장 '기도의 증거: 진실을 알린 울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 폭로 등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을 지켜낸 종교계의 활동을 조명한다. 특히 민중불교연합이 발간한 〈민중불교〉 창간호를 만날 수 있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1985년 5월 4일, 군부독재와 사회적 모순에 맞서기 위해 출범한 불교계 사회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인 평등과 해탈, 중생구제의 정신을 현대 사회 문제에 적용해 민주화,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4장 '기도의 응답: 연대를 이루는 울림'은 전시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1987년 명동성당 농성 현장을 재현하며 종교를 넘어선 연대가 민주주의로 이어진 순간을 보여준다. 해당 파트에서는 불교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인 지선 스님(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승복과 〈유마경〉, 108염주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던 종교인들의 실천을 돌아보는 자리"라며 "오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자리 찾은 도난 성보유산

보경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

24년 만에 환지본처한 도난 문화유산인 보경사 영산회상도와 지상보살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포항 보경사(주지 탄원 스님)는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도난 문화유산의 환수와 원봉안처 복귀를 기념하는 특별전 '보경사 영산회상도·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을 연다.

포항 보경사 팔상전에 봉안됐던 '영산회상도'와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도'는 조선 후기인 1778년에 조성된 불화로, 오랜 세월 신앙의 대상이자 사찰의 역사와 함께해 온 귀중한 성보이다. 그러나 1999년 도난 사건으로 사찰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긴 시간 동안 환수의 노력이 이어졌다.

두 불화의 환지본처 과정에는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으로서 성보 환수 업무를 이끌었던 주지 탄원 스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탄원 스님은 성보유산의 도난과 훼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난 성보의 소재 확인과 환수를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자료 조사, 환수 절차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침내 두 불화는 다시 보경사로 돌아오는 결실을 맺었다.


8월 3일 보경사 영산회상도 · 지장보살도 환지본처 기념전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는 내빈들.

이번 환지본처는 단순한 문화유산 반환을 넘어 성보가 본래 봉안됐던 신앙 공간으로 돌아와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경사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환지본처는 단순히 문화재를 되찾는 것을 넘어, 성보가 본래의 신앙 공간으로 돌아와 다시 그 역할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고 전승하는 일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차 전시가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㊷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영생을 꿈꾸지 마라

生 也 一 片 浮 雲 起

49재를 올리는 절에서는 영가를 향해 장엄한 염불 게송이 울려 퍼진다. "태어남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이다.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듯, 나고 죽고 오고 감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맑고 고요하게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조선시대 선승 서산 대사가 입적하며 남긴 게송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영생을 향한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 삶은 왜 주어졌으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묻는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 물음에 주목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세계 사이의 간극, 그곳에서 생겨나는 감각을 그는 '부조리'라고 불렀다.

카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주어진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한다.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찾는 것이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을 오르는 것, 바로 그 반항 의지 속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얻는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불교는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다른 길을 제시한다. 카뮈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했다면, 불교는 삶과 죽음 자체를 붙들고 싸우기보다 '본래 생사란 없다'는 통찰을 통해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태어남과 죽음은 고정된 것도, 독립된 실체도 아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 잠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생과 사 또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라질 구름에 영원성을 부여하려는 일과 다르지 않다. 잠시 피어올랐다가 흩어지는 생을 붙잡으려는 욕망이다. 영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사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시지프가 굴러 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며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이라면, 깨달은 이는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하늘을 보는 자유인이다. 구름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하늘은 구름의 생성과 소멸을 담담히 바라본다. 삶과 죽음도 그러하다. 삶과 죽음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의 문이 열린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제16회 반야학술대상에 오용석 교수

11월 1일 시상식 및 강연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오용석 학술연구교수〈사진〉가 '제16회 반야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불교학 발전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오용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간화선을 비롯한 명상과 마음공부 분야를 연구해왔다. 특히 간화선을 중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온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오 교수는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2025), 〈마음공부 열 걸음〉(2022), 〈명상, 깨어있는 만큼의 세계〉(2020), 〈선명상과 마음공부〉(2019) 등 20여 권의 저·역서를 펴내며 불교 사상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진각혜심의 간화선관 고찰'(2026), '화두가 의심되는가, 화두를 의심하는 자가 의심되는가'(2023) 등 4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간한 〈서장: 간화선의 교과서〉(2024) 번역에 참여했으며, 2026년 출간 예정인 〈선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제16회 반야학술대상 시상식 및 수상 기념 강연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화상담시 전문지도

신기어린 소리! 성우같은 소리! 가창력 향상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제11회 남한산성 수륙무차대법회 I 산사음악회

의승군 문화제

불기 2570(2026) 09.05 (토) 08:50 ~ 19:00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산사음악회 출연진


트로트가수 송민준


가수 로지


째즈보컬 김혜미


사회자 오계윤


통기타가수 박희진


트로트가수 염수연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